

# 민중의 연대로 부패한 세상에 맞선 항쟁의 초석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

7월 21일까지 동곡뮤지엄서 민중미술 등 33인 작가 참여 5·18 등 여러 항쟁 초석 주목 학술세미나·아트토크도 다채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은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이기도 하다. 민중의 힘으로 부패한 세상에 맞서고 아래로부터 시작된 연대를 보여준 두 사건의 정신은 다르지 않다.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여러 항쟁의 초석이 곧 동학농민혁명으로 대표되는 이유다. 동곡뮤지엄은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기념해 특별전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를 오는 9일부터 연다. 동학의 정신이 바탕이 된 민중미술부터 이를 재해석한 청년예술인들의 신작까지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사상을 내세운 동학농민혁명은 관료들의 부패에 맞서고, 일본의 국권 침탈로부터 나라를 지키고자 한 백성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1년간 이어진 두 차례의 봉기는 비록 실패

로 끝났지만, 이는 대한민국이 근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특히 동곡뮤지엄은 광주 최대의 병역 격전지 어등산 아래 자리해 매년 10월 (재)보문복지재단과 함께 의병 추모제를 여는 등 동학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그 연장선에 있는 특별전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에는 동학 정신에 뜻을 함께 한 전국의 33인(지역 16명·전국 17명) 예술가들이 참여한다. 구본주, 구중서, 김정현, 김준권, 신학철, 주재환 등 민중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뿐만 아니라 노은영, 이인성, 임용현 등 지역의 젊은 작가들까지. 이들은 동학농민혁명을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에 이르는 역사적 순간들을 다양한 예술 형태로 재해석했다.

전시실 초입 동학의 세계로 안내하는 것 광주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 임용현의 영상작품 '죽산 백산'이다. 훗날리는 반투명한 여러개의 천을 화면으로 대신해 푸르른 대나무를 투영했다.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녹두장군 전봉준의 초상도 박성완, 김정현, 김준권 등 참여작가의 손을 통해



동곡뮤지엄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전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가 오는 9일 개막한다. 동곡뮤지엄 제공

만날 수 있다. 동학에서 시작돼 제주 4·3 항쟁, 광주와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서사가 담긴 김화순의 '붉은 우물'도 눈에 띈다. 이성웅의 거대한 조각상 어저작품 '공감'은 민중의 애환을 달래며 따뜻한 품을 건넨다. 이외에도 5·18의 잔상을 담은 여러 작품이 걸렸다.

부대행사로는 학술세미나, 릴레이아트토크, 깃발 만들기 체험도 준비돼 있다. 학술세미나는 동학농민혁명의 핵심 이념

인 인내천 사상의 토대를 마련한 수운 최재우의 탄신 200주년을 기념해 '새 문명을 여는 외침: 다시 개혁과 하늘노심'을 주제로 오는 10일 오후 1시부터 열린다. 김남주 안무비평가 좌장으로 참여하며 김종길 다석철학자, 이선 이강하미술관 학예실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선다.

'릴레이아트토크'는 지역 기획자(문화영 예술공간 집 대표)와 함께 오는 14일,

22일, 29일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릴레이 아트토크에서는 김우성·박성완·박문종·이성웅·송필용·하성흡·조정태·임용현·이세현 참여작가들이 직접 작품세계를 소개하고 예술을 통한 사회변화의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족의 달 5월을 맞이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깃발만들기 체험'도 운영한다. 전시를 감상하면서 느낀 평등과 정의에 대한 생각을 깃발에 옮겨 적고, 완성된 결과물을 미술관 야외에 마련된 깃발대에 꽂는 체험이다. 깃발 2000여개를 세울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완성 후 장관이 기대된다.

정영헌 보문복지재단 동곡뮤지엄 이사는 "이번 전시를 통해 130년의 시간을 거슬러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었던 동학농민혁명의 열기와 정신을 예술가의 새로운 시선으로 살펴봄, 대동세상을 향한 예술의 울림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후원하는 지역전시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전시는 오는 7월 21일까지 이어지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다. **도선인 기자**

## ACC '길 위에 도자' 전 연계 '테마강좌' 마련

5~7월 문화교육실 등 6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인기 전시 '길 위에 도자'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오는 5~7월 '길 위에 도자' 전시와 연계한 'ACC 테마강좌(심화 강연·창작 워크숍)'를 운영한다.

'ACC 아시아 네트워크' 전시 '길 위에 도자'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예술가들이 자신의 조형언어를 통해 표현한 색다른 형태의 도자를 조명하는 전시로 소설, 영화 등 동시대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포착된 '이주'의 현상을 현대미술로까지 확장하려는 시도 중 하나다.

이번 강좌는 △전시 기획자와의 만남 △전시 읽기 △창작 워크숍 등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4일부터 7월 9일까지 ACC 문화정보원B4 문화교육실5와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총 6차례 열린다.

먼저 오는 14일에는 이번 전시를 기획한 ACC 조은영 학예연구사가 '도예로 만나는 문화적 다양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이날 조 학예연구사는 전시 기획 과정과 전시에 미처 담지 못한 작가와 작품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해 전시 이해에 재미를 더한다.

같은 날 문화평론가 구재진 세종대학교 교수와 함께 '떠나야 하는 자와 떠나고 싶은 자의 삶'을 주제로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 소설 '카스테라', tvN 예능 '스페인하숙' 등 오늘날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민자의 삶'에 대해 조명해 본다.

이어 16일에는 정재근 다문화심리학자가 '다문화는 체험이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펼친다. 이날 정 학자는 다양한 문화와의 공존이 오늘날 불가피한 현상임을 언급하며, 불편하더라도 '다른 것', '다르다고 여겨지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형성하고 또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

ACC 배움인 | 1899-0566 | www.acc.go.kr

**ACC 테마강좌**

5.14. 14:00-14:50  
ACC 배움인 1차 프로그램: 도예로 만나는 문화적 다양성  
조은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4. 15:00-17:00  
ACC 배움인 2차 프로그램: 다문화의 의미와 이해: 떠나야 하는 자와 떠나고 싶은 자의 삶  
구재진 (세종대학교)

5.16. 14:00-16:00  
ACC 배움인 3차 프로그램: 다문화 심리학: 다문화는 체험이다  
정재근 (다문화심리학)

7.2. 7.3. 7.10. 14:00-16:00  
ACC 배움인 4차 프로그램: 도자기: 도자기가 되기까지  
백민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4년 5~7월  
기간 내 둘째 주 화·목  
14:00~16:0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B4 문화교육실 5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야만 하는 이민자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 이러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이 개인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본다.

오는 7월 2일, 3일, 10일에는 조선대 미술대학에서 백민지 도예가의 '도예공방: 흙에서 도자기가 되기까지' 창작 워크숍이 진행된다. 워크숍에서는 '길 위에 도자' 전시 참여 작가 중 한 명인 베트남·멕시코계 미국인 린다 응우옌 로페즈(Linda Nguyen Lopez)의 색소지를 활용한 창작방식을 비롯해 핸드페인팅, 성형, 유약 시유와 소성 등 도자기 제작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강좌는 3회 연속 진행되며, 초보자도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이번 테마강좌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와 관객이 색다른 도자의 형태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나누길 기대한다"면서 "현대미술에 담긴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순회 공연 8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국립민속국악원은 지역 순회 프로그램 '2024 찾아가는 국악원-광주 공연'을 오는 8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연다.

아버이날을 맞아 준비한 이번 공연에서 국립민속국악원을 대표하는 단막 창극,

민요연곡, 비나리의 성악 작품, 서울굿에서 파생한 민속춤 및 기악 산조합주 등이 준비돼 있다.

공연의 문을 여는 작품은 관객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비나리'로 '설장구 가락'을 더해 박진감 있게 무대를 구성했다.

또 국악기의 독특한 음색과 장단의 멋이 특징인 '산조합주'와 고단한 삶의 짐을 어우르는 '대신무'가 이어진다.

**도선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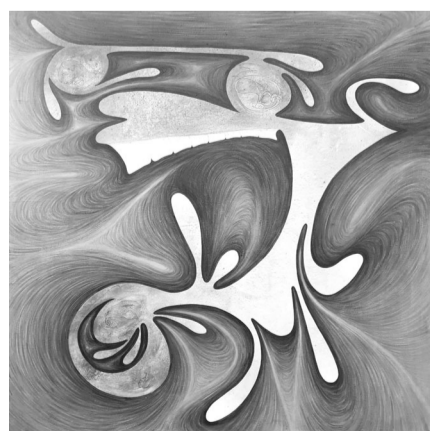
## 천태만상 표정으로 가득... 김유홍 개인전 '심상'

21일까지 광주대 호심미술관

광주대학교 호심미술관은 마음의 표정을 그리는 작가 김유홍의 열세 번째 개인전 '심상(心像)'을 오는 21일까지 연다.

마음의 표정을 그리는 심상 작가 김유홍의 내면세계는 사의(寫意)로 그득하다. 동양의 사의적 시각으로 바라본 인간 마음의 표정을 자유자재로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10여 년 전부터 3호 개별 만상(萬像) 작업을 시작했다. 매일 도를 닦듯 돈오와 점수를 넘나들며 무아의 경지로 다양한 표정을 그린다. 인간 삶의 향기를 느끼면서 이번 전시에 157점의 작품을 출



김유홍 작 심상표정.

품했다.

작가는 "마음속 다양한 감정과 표정을

추상적 이미지로 그렸다. 일단 시작된 선은 끊임없이 변화를 이룬다가 시작된 부분과 맞닿을 때 종료된다. 다양한 상상력과 해석으로 천태만상의 표정을 일필로 완성했다"고 말했다.

최준호 호심미술관장은 "그의 작품은 춤을 추듯, 웃듯, 연기처럼 사라지듯, 다른 사람과 얘기하듯, 혼자 턱을 괴고 사유하듯 한다"며 "심상 표정 작업을 통해 세상의 이치와 인간 삶의 희, 노, 애, 락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홍 작가는 홍익대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제7회 고양국제아트페어 대상 수상, 개인전 13회, 그룹전 75회 등의 이력이 있다. **도선인 기자**